



수원 K-리그 챔프 1차전 내일 밤 8시 서울



에두



서동현

“ 챔프 축포는 우리가 쏜다 ”

에두·서동현-데얀·정조국 '골잡이' 자존심 대결 관심



데얀



정조국



현대와 플레이오프에서 4-2 완승을 하고 수원의 맞선대로 결정됐다.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따져도 두 팀의 우위를 따지기는 어렵다.

수원이 서울에 두 차례나 2-0 승리를 거둬, 서울은 두 번 모두 1-0으로 이겼다. 득점력에서 수원이 앞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양 팀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을 때 패한 것이라서 쉽게 전례 차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 수원이 서울보다 실점감각이 떨어진다 단점이 있지만 서울 역시 120분 연장 혈투를 펼치고 나서 3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돼 체력적으로 불리한 만큼 어느 팀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수원과 서울은 양병 골잡이의 눈부신 활약과 토종 스트라이커의 든든한 골 사

냥에 탄력을 받아 정규리그 1, 2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수원은 에두(15골)와 서동현(13골)의 '쌍골이 득점포'를 앞세우고 신영록(7골)과 배기종(5골)의 알뜰한 골잡이 활약에 정규리그 선두 질주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맞서는 서울은 지난달 30일 울산과 플레이오프에서 나란히 선제골과 추가골을 터트린 정조국(8골)과 데얀(15골)을 비롯해 '젊은 피' 이창용(6골)이 시즌 후반기 도약의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수원은 시즌 중반 이후 부상자 속출로 선수들의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대부분 복귀했고, 최근 수비수 이정수가 1군 훈련에 합류하면서 수비진에도 보강됐다.

서울 역시 팀 분위기가 최고조다. 광대뼈 골절로 시즌 아웃이 우려됐던 정조국이 불굴의 의지로 플레이오프전부터 출전한 게 동료의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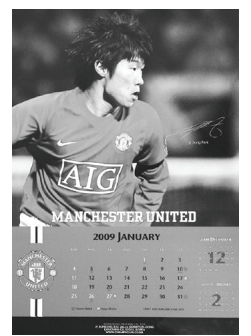
루니 "고마워 지성"

개인 통산 100호 골 박지성 헤딩서 비롯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맨체스터 데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결승 득점포로 장식한 웨인 루니와 함께 팀 승리에 앞장섰다. 박지성은 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시티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2008-2009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후반 44분 존 오셔로 교체될 때까지 89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맨유는 루니의 선제 결승골과 박지성의 공·수 활약으로 1-0으로 승리, 지난해 두 차례 패배를 안겼던 맨시티에 설

욕했다. 지난 9일 아스널과 정규리그 11라운드부터 23일 애스턴 빌라와 13라운드까지 네 경기 연속 선발로 뛰었던 박지성은 지난달 26일 비야 레알(스페인)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승을 고른 뒤 1주 만에 선발로 출격했다. 루니의 100호 골은 박지성의 머리에서 시작됐다. 박지성은 전반 42분 상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혼전 중에 공이 뜨자 헤딩으로 왼쪽 측면으로 침투한 마이클 캐릭에게 패스했다. 캐릭이 강하게 찬 공을 끌기며 하트가 쳐내자 골지역에 도사리고 있던 루니가 오른발로 우겨넣어 골에 담겼던 맨시티의 골문을 열어젖혔다. 영국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박지성에게 평점 6점을 매겼다. 이 매체는 "전반전에는 훌륭했고 후반전에는 눈에 띄는 활약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지성 맨유 달력 1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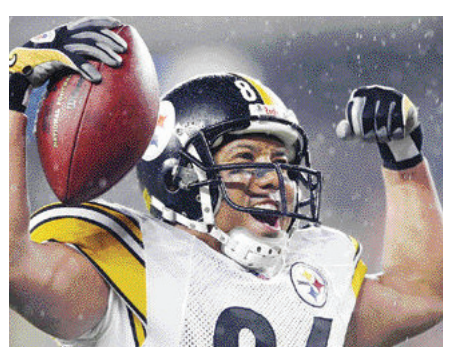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박지성이 2009년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달력에 1월 표지 모델로 실렸다.(사진)

맨유의 공식 한국 라이선서인 ㈜동승스레 이당이 한국 팬들을 위해 아시아판으로 2천부씩 한정 제작한 달력의 1월 표지에는 공을 향해 돌진하는 박지성의 역동적인 모습과 함께 사인이 담겨 있다.

이어 게리 네빌(2월)과 파트리스 에브라(3월), 오인 하그리브스(4월), 리오 퍼디낸드(5월), 카를로스 테베스(6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7월), 루이스 나니(8월), 네마냐 비디치(9월), 웨인 루니(10월), 라이언 기스(11월), 에드윈 판 데르사르(12월)가 각각 월별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맨유의 내년 7월 방한과 맞물려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 달력은 롯데 마트와 E마트 등에서 벽걸이용 2만원, 탁상용 1만 원에 각각 판매된다.



워드 6경기만에 터치 다운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사진)가 6경기만에 터치다운을 찍고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워드는 1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폭스보로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NFL 정규시즌 13차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와 방문경기에서 13-10으로 앞선 3쿼터 종료 5분 4초를 남기고 쿼터백 벤 로슬러버거의 11야드 패스를 받아 뉴잉글랜드의 수비진을 뚫고 터치다운을 찍었다. 지난 10월 20일 신시내티 벵갈스전에서 개인 통산 70호 터치다운을 기록한 이후 6경기 만에 나왔다. 시즌 6호제.

와이드리시버 워드는 이날 5번 패스를 받아 37야드를 전진한 데 그쳤지만 승부를 가른 터치다운으로 이름값을 했다. 피츠버그는 제프 리드의 보너스 킥과 필드 골로 3쿼터에서 23-10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고 4쿼터에서 리드가 필드골을 추가하고 개리 러셀이 종료 2분여를 남겨 놓고 터치 다운으로 화기를 막아 33-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이형택 세계 랭킹 107위

지난주보다 11계단 올라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2·삼성증권)이 1일자 새 랭킹에서 107위로 지난주보다 11계단 올라섰다.

지난달 30일 끝난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대회 더블 월드챌린저에서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이형택은 이로써 2008시즌을 107위로 마치게 됐다.

12월에는 투어, 챌린저 대회가 열리지 않

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9년 1월 19일 시작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 본선 직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모두 128명이 출전하는 단식에는 와일드카드 8명, 예선 통과자 16명의 몫이 있기 때문에 순위로 결정되는 자동 출전권은 세계 랭킹 104위까지 주어진다.

8일자 순위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이형택은 104위 이내 선수를 가운데 호주오픈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가 3명 이상 나와야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 2일(화)
▲농구대잔치 결승 (14 : 50·SBS스포츠)
▲V리그 <LG손보 : 신협상무>(18 : 40·KBSN SPORTS)
▲프로농구 <LG : KCC>(19 : 00·MBCE-SPN·SBS스포츠·Xports)
3일(수)
▲갈릴립 축구 <버리 : 아스널>(04 : 30·KBSN SPORTS)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다리우스 바셀과 공을 다루고 있다. 맨유가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Opportunity'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